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선택한 영적 돌봄 부산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이○○(65/F)
- 진단명: 대장암(폐, 림프절, 뼈 전이)
- 입원 경과: 2015년 10월 대장암 진단받고 대장 절제술 후 2016년 1월부터 수차례 항암요법과 방사선 요법 시행, 주로 복부 통증 있으며 진단 후부터 수면장애 있어 신경과 약 복용. 내원 2주 전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투약하시던 분으로 통증 지속되어 호스피스 병실 입원함.
- 호스피스 완화병동 입원: 2017.12.26 ~ 2018.2.18

<입원 시 상태>

- 활동상태: ECOG - 3~4
- 의식 상태: 명료
- 피부: 미골부위 2단계 욕창
목과 가슴 부위 압세포 돌출
- 통증: NRS 7점
(목 부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식이: 죽 1/5공기로 섭취량 저하
- 신체 사정: 기침, 객담, 호흡곤란

진료 부분

<병력>

2015. 10. 대장암 진단받고 이후 수술 및 항암 치료 방사선치료 시행하였으나 폐 전이, 뼈 전이 진행하여 2017.12.26 호스피스 병동 입원

- 경구 마약성 진통제 복용
- 돌발성 통증 조절 위해 필요시 속효성 진통제 추가
(반응)
- 입원 초기에는 통증 조절 비교적 양호
- 입원 후기에는 폐 전이로 인한 호흡곤란과 흉통 심해져 모르핀 요구량 증가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1. 통증

(사정)

- 복통 및 뼈 전이로 인한 통증
(치료계획)
- 통증 병력: 통증 위치 강도 유발 요인 확인
-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 사회적 평가 시행

2. 발열

(사정)

- 발열 원인 파악을 위해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촬영 시행
(치료계획)
- 요로감염 진단되어 항생제 투여
(반응)

- 항생제 투여 후 발열 없어지고, 소변검사도 정상 회복

3. 기침 및 호흡 곤란

(사정)

- 폐 전이로 인한 증상

(치료 계획)

- 폐 전이가 원인으로 증상 조절 위해 약물 투약하고 필요 시 산소 치료

(반응)

- 증상 다소 호전

간호 부분

1. 암성질환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왼쪽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호소함.
- 왼쪽 목으로 cancer cell 돌출되어 있음.
- 통증 평가 시 최고 통증 8점임.
- 폐, 뼈 전이 있음.

(계획 및 중재)

-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 지지적,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 체위변경 시 통증에 영향을 주는 체위는 피하도록 한다.
- 처방에 따라 투약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한다.
-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 대한 교육을 한다.
- 편안한 체위를 유지한다.
-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한다.
- 필요하면 계속해서 처방된 약물을 주입하고 반응을 기록한다.

(평가)

- 보호자 상주하에 편안해진 표정 보임.
- 통증 점수 2점으로 줄어듦.

2. 욕창과 관련된 피부통합성 장애

(사정)

- ECOG 4단계
- Braden scale: 7점 (고령, 욕창 고위험군)

- Coccyx pressure injury 발생함
- stage: unstagable
- size: 8x9cm
- RT 받으면서 하지 위약감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함.

(계획 및 중재)

- 욕창 부위, 피부 상태 주기적으로 사정함.
- WOCN 연계 하에 dressing daily 시행함.
- Dressing 전 진통제 투여함.
- 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 실시함.
- 기저귀 자주 확인하여 교체하도록 함.
- 피부를 청결히 한 뒤 건조시키도록 함.
- 환의 및 시트의 구김이 없도록 함.
- 공기침대의 작동 여부 확인함.

(평가)

- 완화의료도우미 도움 하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함.
- Wound care에도 전신상태 저하로 유지되는 정도임.

3. 호흡곤란과 관련된 불안

(사정)

- 입원 시부터 호흡곤란 및 coughing 호소함.
- SpO2: 88%, RR: 16회/min
- 폐 전이 있음.

(계획 및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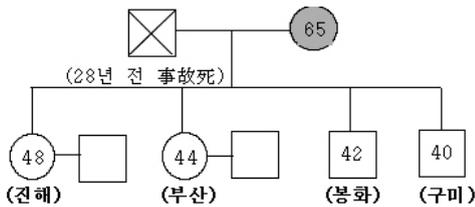
- 호흡 상태를 적어도 4시간마다 사정하고 기록함.

- 마약성 진통제의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처방에 의해서 주사제(모르핀)를 처치함.
- 흉곽을 최대한으로 팽창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체위를 취하도록 도와줌.
-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함.
- 처방에 따라 산소를 제공하고, 심호흡 교육함.
-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

-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줌. (평가)
- O2 5L/min inhalation 하면서 안정된 모습 보임.
- SpO2: 95%, RR: 20회/min
- 호흡곤란 발생 시 바로 간호사실에 주사 요청함.

사회복지 부분

<가계도>



<개인력>

- 성별/나이: F/66
- 보험 분류: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 8만7천 원)
- 직업: 무(전 직업: 거제도에서 조선소 근무, 정년퇴직 후 63세까지 연장 근무)
- 결혼: 사별
- 종교: 불교
- 성격: 호불호가 분명하며 고집이 세다. 생활력과 의지가 강하다.
-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식: 병식과 예후 인식 있음.
- 삶의 여정에서 문제 대처 능력이 높지는 않으나 본인의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음을 전함. 성향상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온 것으로 자녀 평가.
- 취미, 여가선용을 음주로 말할 정도로 즐겨하였고,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은 온유한 대화보다는 잼(아들 표현) 오가는 다툼을 할 정도로 과격함이 있었음을 전함.

<가족관계>

- 원 가족이 8년 1남으로 다섯 번째이며 연애 결혼, 슬하에 2녀 2남을 두었으며 남편은 막내아들이 초 4년 때(28년 전) 사고사로 떠나 혼자서 가정을 꾸리며 자녀 양육.
- 두 딸은 출가하였으며 미혼인 아들들은 각자의 일을 가지고 생활을 하던 중, 환자의 부름에 따라 머슴처럼 불려와 어머니 돌봄을 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휘둘렸다고 함. (강한 표현 이면의 어머니이기에 돌봄의 당연성과 애정 드러남 관찰)

<경제력>

- 주 소득원: 본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저축금으로 생활
- 주거: 거제도에 본인 명의 자가 소재.
- 사보험 여부: 암보험 하나 있음.

<퇴원 계획>

- 증상조절, 호스피스케어로 편안한 여명
- 임종계획: 점차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장지는 고향의 선산(영주시 풍기읍)으로 생각 중임.

<사정>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설명으로 부분적이며, 편안한 생활에 대한 기대 있음.
- 입원 일부러 호흡곤란과 한 번씩 하는 기침

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곁에서 보기에
불안해 보임.

- 몸 상태에 민감하여 증상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심리적 정서 보이기도 하나, 설마 무너질까 생각하며 “이겨낼 거다. 아직 가기에는 아깝다.” 하며 의지를 보임.
- 환자 상태 유지에 따라 다소 둔감해진 자녀들의 태도 전환. (2년 전 진단 시 3~6개월 여명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함.)
- 환자 돌봄을 잘하는 아들들이나 지속적인 돌봄으로 심신의 소진 우려
: 산에서의 요양원의에 따라 미혼인 두 아들은 일을 보류하면서까지 꼼짝없이 머슴처럼 불러 와서 돌봄 지속.
본 병동에 와서 도우미 제도에 힘입어 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음과 상담 중 털어놓는 말로 인해 힐링이 됨을 전함.
- 환자가 항암제 Targin 사용에 대한 트라우마 있음과 원인 불명열의 지속에 걱정하는 아들.

<개입 및 중재>

호스피스 의미를 재고하며 안정되고 유의미한 여명을 위한 다학제적 돌봄으로

- 1) 당신의 몸에 민감한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한 배려
: 주치의 통한 자연스러운 연계
- 2) 환자의 삶의 여정, 부녀 가장으로서의 삶의 수고 알아주기 및 자녀들의 지속적인 지지 및 격려의 필요성 안내.
- 3) 아들의 주 돌봄 지속에 따른 소진 완화 도모
: 완화의료도우미의 일상생활 보조와 자원 봉사자의 지원 통한 환자 돌봄의 여유 제공
- 4) 예측불허 여명, 임종 돌봄 계획 안내 및 정보제공
- 5) 환자와 가족의 병상 생활 활력 도모
: 지속적인 병실 방문, 면담, 이벤트, 요법 프

로그램과 가족 교육 참여 통한 기분전환, 활력 도모, 돌봄 정보 제공

- 6) 천주교에 대한 호감, 영적 돌봄 팀 연계, 대세(마리아) 이후 돌봄 강화
- 7) 환자의 호흡곤란 지속으로 대화의 연결 어려움, 돌봄의 선회 (봉사자들의 기도 지원과 아로마 발 다리 마사지 등 환자의 심신 이완 및 안정 도모 위주)

<결과>

강한 의지로 견뎌내는 환자의 병상 생활, 부녀 가장으로서의 삶의 수고를 아는 어머니 돌봄에 대한 아들들의 헌신에 비해 딸들의 돌봄이 좀 미흡하다 여겨지지만, 그들 가족 구성의 특성에 맞게 돌봄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팀원들의 협조에 의해 돌봄의 수고 훨씬 수월했음은 물론 실제 도우미 손길보다도 어머니의 안위 애쓰며 밀착 돌봄 했던 아들의 응대가(환자의 산소마스크 착용으로 대화가 원만치 못했음) 병실 밖으로 올려 나와 미소 짓게 했던 상황들이 많았음. 호흡곤란으로 일상이 힘들었음에도 열린 마음으로 지내며 당신의 원의와 의지로 대세를 받아 이로 인한 환자의 심리 정서, 영적 지지가 원만히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 보임 관찰.
병상 생활 유지 동안 임종 돌봄 계획과 장례 준비에 관해 재확인 및 구체적인 안내로 원만히 진행되었으나 이별의 슬픔은 어떤 준비도 충분치 못함을 이해하며 사별 돌봄 진행.

임종 후 사별 가족 돌봄

- 정기적 돌봄 계획에 따라 진행
- 장례 후 병동 방문한 아들, 감사와 고마움 표현함.
- 유가족 위로, 호스피스팀원과 가족과의 지속적 관계유지
전화 문안; 장례 후 안부 및 일상생활의 복

귀 지지 (딸, 아들)

지 2회 발송.

- 사별 가족 모임 안내 및 사별 가족 안부 편

원목 부분

1. 환자의 종교적인 배경

소멸되어가는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종교적인 부분이 앞으로의 의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돌봄의 영역이라고 믿기에 환자의 종교적인 배경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환자는 열심히 하지 않은 불교 신자였고 본 병동에 오시면서 당면한 현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입원한지 한 주간이 되지 않아서 대세를 받으셨다.

2. 영적 돌봄의 상황

- 환자와의 만남은 매일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환자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돌보기 위한 기도와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봉사자들을 연계하여 기도와 특히 환자가 좋아하셨던 발마사지를 통해서 말벗을 해 드리는 것과 일주일에 3회 방문하여 안수를 주시는 원목 신부님의 영적 돌봄으로 진행했다.

- 환자의 영적 돌봄

환자의 영적 상태는 생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셨고 대세를 받은 이유도 현재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고 따라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곁에 아들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게 하셨다. 따라서 영적 돌봄 자로서 주력한 것은 매일의 방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는데 다행하게도 환자는 통증과 심한 욕창으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의 사제와 수녀의 만남

때마다 미소로 환대를 해주셨고 어찌면 이런 모습은 우리의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느님께 기도 해 주는 존재로 인지한 덕분으로 보이지만 그런 과정조차도 사실은 환자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을 통해서 신에게 의존했을 것이고 그것이 힘든 순간들을 견디어 낼 수있는 영웅적인 힘으로 전환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자신의 지난 삶들이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고 끝까지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다는 것과 그 증거는 아들이 이렇게 환자 곁에서 환자를 잘 돌보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서 한 번의 삶을 후회 없이 성실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신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존경해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드렸다.

- 보호자들의 영적 돌봄

환자에게는 결혼한 두 딸과 그 아래로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주 돌봄 자는 두 아들이었고 그중에서도 주로 환자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맏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거처가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쉴 때 자신들이 몸을 누이고 쉴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돌봄에 있어서 제삼자였던 두 누나, 특히 제대로 못 돌본다는 식의 원망과 꾸중을 들으면서 견뎌야 했던 심리적 정서적 압박이 엄청나게 컸던 아들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를

드리고 도움이 될 것들을 챙겨주고 누나와 갈등과 관계에 대해서 상담도 함. 두 아들은 환자를 보내드리고 생업으로 돌아가지만, 환자가 이곳에서 받았던 사랑과 감사를 잊지 않겠다는 인사를 해 주심.

3. 마무리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를 원하셨고 엄청난 통증과 욕창으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영웅적으로 견디어 낸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분이셨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삶에 집중하셨고 충실하셨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떠나야 할 시점이 되니, 즉시 자신을 내려놓으신 모습으로 아주 단순하게 평화

롭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셨다. 어쩌면 오직 살기 위해서만 싸워왔던 투사처럼 보였던 환자는 결국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희망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준비였음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대세를 받은 환자이니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천주교의 장례미사로서 보내드리도록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여 그렇게 보내드리고 단지 환자가 천주교식의 세례를 받아서 '마리아'라는 세례명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도록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고 이후에는 사별 가족 돌봄을 통해서 가족 돌봄을 이어갈 것임을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함.

자원봉사 부분

호스피스 봉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아들 되시는 분들이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환자를 극진히 돌본다.

이○○ 님 이 분도 그런 분이셨다. 늘 아들이 옆을 지키고 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간호해드리고 있었다. 누나들이 있음에도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더 든든하셨으리라 여겨진다. 아들을 머슴처럼 부려먹는다고 옆에서 말할 정도로 모든 일에 아들의 도움을 원했고 늘 곁에 있어 주길 원했다. 조심스럽게 "아드님께서 옆에 계셔서 든든하시겠어요." 말을 건넸더니 자신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며 입원 전까지도 일을 했노라고 말씀하시며 특히 큰아들에 대한 큰 믿음과 신뢰를 하고 계셨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계신 듯했다.

원목 수녀님께서 대세를 권유하셨고 1월 1일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으셨다. 우리 봉사자들이 기도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으며 매번 신부님의 안수도 받으실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 욕창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어하셨다. 마지막 순간에 오랫동안 병동에 계셨기에 천주교식으로 도움을 드리려 했으나 집안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대세를 받을 수 있음에 우리는 모두 다행으로 생각하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